

일본 성마리아 대학원 개강기념식에서...



조규상 명예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I. 대학의 변천

인류의 고대문명은 기원 전 4,000~5,000년 경, 유프라테스, 나일, 인더스 그리고 황하강 유역에서 시작되고 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기원 전 3,000년 경 슈멜인이 상형(象形)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오늘의 알파벳 문자는 기원 전 1,700년 경 22개의 문자에서 시작하여 나전어, 희랍어와 같아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한자도 같은 시기 은(殷)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이들 글자는 문화의 기초로서 특수계급사회에서 사용되었다.

1. 고전적 대학(古典的 大學, University)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명칭은 중국에서는 당(唐)나라시대(AD 600년) 국사학, 대학, 사문학(四門學)의 학교 제도 속에서 나오는 고등 관리 양성소였다. 이 제도는 그 후 한국과 일본에서도 전수되었다. 구라파에서의 고등교육은 AD 800년 경 칼 대제(大帝)가 수도원에 그코라(학교)를 부설하는데서 시작되는데 대학(University)의 기원은 AD 1150년 경 이태리의 Bologna에서 시민 중 지식인이 가두에서 연설을 하여 가르친 것이 그 후 교사의 무임인 동업조합(Guild)을 형성하여 학생의 모임인 Guild와 합하여 대학이 창립되었다고 한다.

그 후 대학은 Paris(1200), Padoa(1222), Heiderberg, Oxford, Cambridg(1250)로 퍼져 나갔다.

구라파의 대학은 각 도시에 하나씩 생겨났고 소규모의 엘리트들이 모인 국경을 넘은 단체로서 나전어가 고용어로서 사용되었다. 대학은 지적 탐구를 추구하는 자율성을 가진 공동체로서 Bologna 대학의 경우는 후레드릿히 I 세가 공인한 학생 자치단체인 학생조합에 의하여 로마에서 이루메스를 교수로 초빙하여 법학부를 개설한데서 시작되어, 그 후 16세기 까지 신

※ 본 원고는 2006년 7월 15일 일본 성마리아 대학원 개강기념식에서 강연한 요지임

학부, 철학부, 의학부가 생겨났고 2000년 현재는 13학부에 2,700명의 교수와 90만 명의 학생을 가진 국립대학이다. 당초의 대학은 왕권(王權)이나, 교권(敎權)에 속하지 않는 이성적 비판의 자유를 가진 학자의 단체로서 학권(學權)을 설립하였다.

이 초국가적 비판이야말로 대학의 존재가치였다. 대학은 외부와 격리된 상아탑(象牙塔) 속에서 교수는 최고 권위자로서 학파를 형성하여 제자에 군림하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고 외부의 분야들과는 거의 교류가 없이 같은 분야의 학회(學會)가 그들의 무대였다.

교수와 제자는 도제제(徒弟制)의 관계로서 교수는 학위 제도를 가진 교수회의 일원이었다. 당시 세간에서 사람들은 왕이 되지 않으면 교수가 되라(King order Professor)고 할 정도로 교수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2. 대학의 국유화(國有化)

학권이 강해지는 가운데 교리의 해석을 놓고 교권과의 충돌도 있었으나 15세기에 이르러 구라과 각국은 항해술의 발달로 신대륙 발견과 식민지 획득에 나서 전체 주위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부국강병책(富國強兵策)의 경쟁 속에서 대학은 국가의 경영물이 되었다.

각국은 신 병기개발에 열광하여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해 기술학교를 세웠다. 예컨대 프랑스의 종합기술학교(ecole politecnic)를 나폴레옹은「금괴를 낳은 암탉」이라고 좋아하였다. 이리하여 미국에서는 Institute(예, MIT) 독일에서는 Hoch Schule 소련에서는 Academy라고 불리우는 대학들이 기술개발의 주력이 되었다.

스탈린도 생전에 「국가는 노동자, 농민과 같이 기술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한편 사회주의국가나 제국주의국가에서의 일반대학은 학문적 비판의 자유보다도 국수주의 하에 통일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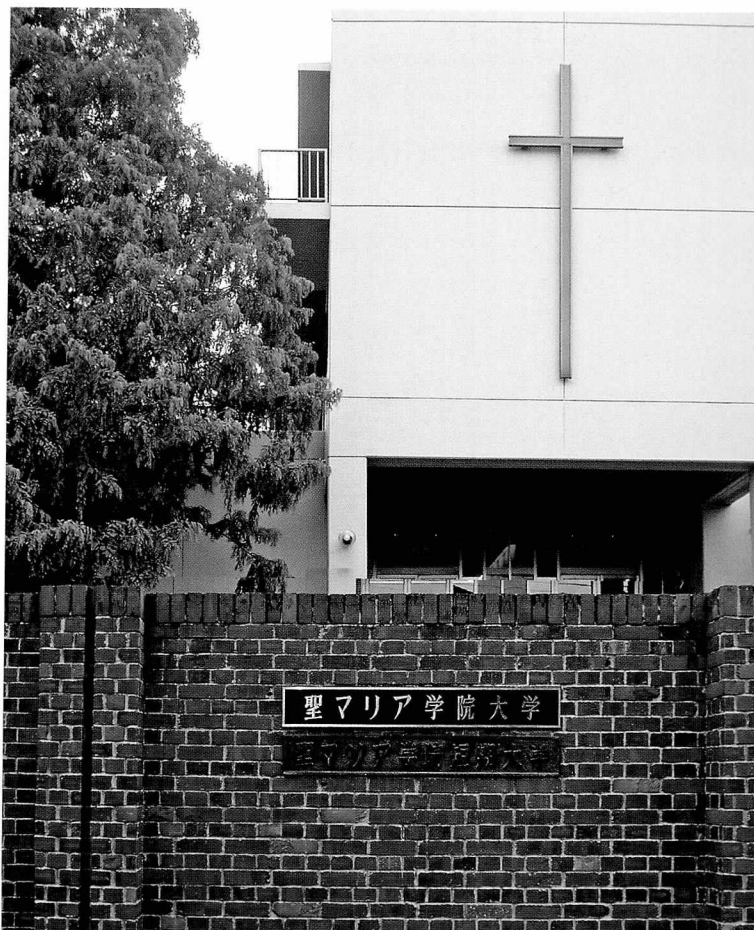
간형성이란 국책에 주력하였다.

3. 다원화 대학(多元化大學, Multiversity)

산업혁명에 의한 공업기술의 혁신과 급속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대학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대학은 진리의 탐구라는 하나의 목표만이 아니라 유용성(有用性)을 지식의 가치로 생각하게 되었다. 교양이 많은 고결한 인재보다도 유용성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다. 지식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각 분야는 세분화 되어 많은 분야(목적)를 가진 다원화 대학이 생겨났다.

오늘날은 대중에 의한 민주주의시대이다. 그 결과 대학



은 많은 지식을 공급하는 맘모스대학이 되었다. 대학은 공동체(Gemeinschaft)보다도 이익단체(Gesellschaft)의 면이 강하여 규칙이나 계약에 구속되는 사회가 되었다. 예컨대 교수임기제가 그 하나이다.

오늘날의 대학은 당당한 지식의 백화점화 되었고 대학의 운영도 기업화되어 많은 규제와 규칙 속에서 고전적인 자치제(自治制)는 볼 수 없게 되었다.

대학들은 광고를 해서 학생모집을 하고 있다. 고도공업화와 대중소비사회는 대량의 지식 전달이 필요하므로 그러한 자본주의 지식의 백화점이 생긴 것이다. 과거 교수에 의한 강의는 교과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었고 학생들은 소정의 학점을 따면 되게 되었다.

19세기 초 독일의 Fumbort가 말한 「대학의 연구교육의 자유를 철학이라는 초세속적 구조에 둔다」는 원형은 사라진 것이다. 교수와 학생간의 유대도 소원하게 되어 학생은 단지 정해진 학점을 따고 교수는 맡겨진 강의를 하면 되게 되었다.

2차 대전 후 각 나라에는 대학이 갑자기 증설되었고 또한 다원화 대학이 신설되었으며 대학의 운영도 교수 중심에서 교육행정의 전문가에 의하여 운영되는 새로운 시대의 양상으로 바뀌어졌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날의 대학은 정책에 따른 산학협동 체제로 되어 고등기술자나 전문기술자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기관으로 되어 학생은 이러한 인간기계산업의 벨트컴퓨터에서 돌러가며 생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II. 대학의 교육

1. 인간개발

「물은 흘러도 강은 흐르지 않는다」는 속담과 같이 원래 대학 설립 이념은 깊은 지식의 탐구와 더불어 사회에 공헌하는 고매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 이념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

대학의 교육은 전문분야의 연수와 더불어 ① 각자의 인생을 생각하며 ② 기초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창조력과 사고력을 기르고 ③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하며 ④ 사회를 지도해 나가는 이상을 갖기 위한 자기 연마의 장이며 ⑤ 확고한 사상을 갖기 위한 수련의 장이다.

대학은 고도로 발달하여 가는 문명 속에서 종합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발견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터전이다.

종래 인간 형성과 인격도야라는 말이 잘 쓰여 졌으나 이 말은 용광로에서 녹인 철을 주물에 부어 원하는 형태로 제품을 만든다는 뜻인데 대학은 인간을 같은 형태의 틀에 부어 마음대로 만드는 곳이 아니다.

철학자 Kant는 「철학은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철학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은 만들다(formation)는 것이 아니라 개발(development)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2. 인간이란 무엇이나

자기인식에 관하여 Kant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기에 존재한다」라고 말하였는데 도대체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이며 어디서 온 것인가. 자기발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의 기원에 관하여 Darwin이 주장한 종의 기원(1859)의 진화론(進化論)은 동물은 소수의 계통에서 다수





강남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기념비



새병원 조감도

의 종류로 진화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인간에도 해당되며 인류도 영장류에서 진화하였다는 학설이다.

인류학자는 인간 조상의 탐구를 화석(化石)을 가지고 형태학적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고고학자는 인간과 유인원(類人猿)인 침팬지와는 DNA 유전자가 98% 일치하고 있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지구가 형성되어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약 40억 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으로 본다면 유인원이 출연한 것은 대그믐날인 12월 31일 오후 9시 45분 경이며 인간은 11시 58분의 사건이 된다고 한다. 이렇게 인간의 탄생은 척추동물, 영장류, 인간으로의 방대한 시간을 거쳐 준비되었다고 하나 보기에 따라(지구력)서는 대단히 짧다고 말할 수 있다.

인류의 화석(化石)은 유인원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인간의 뇌(腦)는 원숭이에 비해 4배나 되는 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진화의 연속성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원숭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것은 언어(言語)와 행동이다.

원숭이의 소리와 인간의 언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언어는 모음(母音)과 자음(子音)으로 되어 있고 오늘날 언어의 표현은 3,000~6,000가지, 아니 어쩌면 무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원숭이의 소리는 이것이 없다.

또한 인류의 발전은 환경을 극복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자연도태의 진화법칙과는 전혀 다른 비연속성 행동인 것이다.

물질에서 생긴 것이 과연 물질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을까.

인간의 지적(知的) 탐구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Darwin과 같은 진화론자인 Wallace도 이것을 초자연적(super natural) 간섭이라고 보았다.

Darwin은 2년간 체제 후 런던에서 귀국하는 미개한 회고인이 문명에 익숙한 생활을 하고 있는 태도를 보고 기이하게 느꼈다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다. Wallace도 아프리카의 미개인의 아이가 로마에 와서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한 실례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침팬지는 20년간 훈련하여도 말을 하지 못한다.

여기서 인간의 생명은 과연 진화의 산물인가, 아니면 신에 의하여 창조된 것인가를 묻게 되나 이 두 가지 개념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인간만이 가진 본질을 생각할 때 진화론은 신에 의한 인간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가르치는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진화론의 제2단계로 말하기도 한다.

우주력에서 보면 일순에 지나지 않는 인류는 끝까지 이대로 존속할 수 있는 것일까. 세계의 대그믐을 맞이함도 없이 환상처럼 꺼져버리는 것이 아닐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순간에 지나지 않는 나는 도대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되나.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 다음호에 계속